

가르치는 교회▪전파하는 교회▪봉사하는 교회

표어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1. 영적부흥을 통해 예수의 제자가 되어,
2.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3. 21세기를 감당하는 일꾼을 키워내고,
4. 지역사회를 인도하고,
5. 세계선교에 헌신하는데 있습니다.

월 행사 안내

3월 3일(주일)
제21기 청년제자훈련반 시작

3월 6일(수)
교육부서 수요모임 '토브' 개강

3월 17(주일)
제직회

3월 29일(금)
고난일 저녁예배
성찬식

3월 31일(주일)
부활주일, 입교/세례식

대 예수교장로회
양주

한우리교회

담임목사 **남 우 택** (Stephen W. T. NAM)

59 View Rd. Glenfield, Auckland, 442-1457

Hanouri Korean Presbyterian Church



주일에배

예 배 순 서

1부 8:00 2부 10:00 3부 12:00 4부 2:00 사회: 1부/김진영 2부/최영두 3부/이성민 4부/나하영

- 예배부름 사 회 자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함 께
- 경배와찬양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다 함 께
주께 가오니
- 봉헌 및 1부/ 생백춘 권사 2부/ 최병한 장로 3부/ 민봉식 장로 다 함 께
대표기도
- 성 경 골 3:17-24 사 회 자
- 찬 양 2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시온찬양대
3부: 주의 이름 앞에 할렐루야찬양대
- 말 씬 시대를 이끄는 사람 7 남우택 목사
무슨 일이든지 주께 하듯
- 찬 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다 함 께
내 평생 사는 동안
- 축 도 설 교 자

<4부 예배 순서>

- 경배와찬양 다 함 께
- 봉헌 및 오 로 지
대표기도
- 찬 양 주와 같이 길가는 것 가브리엘찬양대
- 말 씬 막 1:15 [하나님 나라와 복음 4] 김진영 목사
복음을 믿으라!
- 축 도 설 교 자

다음주 기도: 1부/ 김승기 장로 2부/ 조나영 권사 3부/ 이성열 장로 4부/ 김수경 청년

수요일예배

저녁 7시30분

말씀: 약 4:13-17

제목: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기도: 김태성 집사 (다음 주 기도: 송현호 집사)

설교: 김진영 목사

교회 소식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회알림

1. 한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접견실에서 만남이 있습니다.
2. 예배 시작전, 소지하신 휴대폰을 반드시
무음 처리하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3. 한우리 도서실에서는 정기적으로 신간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양한 책들이
새로왔으니 부담없이 오셔서 많이 이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목상교재 '복있는 사람 3/4월호'를 교회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10)
5. 담임목사 동정: 한국 침신대학교 영성
수련회 인도 및 개인 업무차 출타하오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및 입교 안내

세례 및 입교식이 3월 31(주일)에 있습니다.

- 교육일정: 3월 23일, 30일(토) 1시~3시
- 문답: 3월 30일(토) 3시 사랑부실
- 입교 신청자는 만14세 이상으로 성경일독을
미리 하고, 세례 신청자는 만14세 이상으로
성경일독 또는 한우리교회 유튜브채널에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총18강을 미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HanouriTV>)

- 문의: 안현수 목사 021 0863 7987

교육부서 및 교육위원회

- 청년 부흥의 나라:
제21기 제자훈련 시작. 3월 3일(주일)
- 교육부서 '토브' 수요모임: 3월 6일(수)

전도부

- 이번 주일 오후 3시에 타카푸나비치
어린이 놀이터 옆에서 거리전도를 합니다.
불신영혼 구원을위하여 기도해주시고
동참해 주세요.
(우천시 스타벅스 건너편에서 합니다.)

월	일	모장/사역팀 거리전도 스케줄
3	3	필리델피아푸른 / 인도원달라
	10	히엘필리핀 / 베트남
	17	이리안자야뽀대나 / 양의문

교우동정

- 새가족

이름	가족	주거지
최유진	강수임	Morriggia Pl. Glenfield
강병욱 유경아	강지훈, 예훈, 예린	Makamaka Ln. Albany
최출리아	김수겸	Montmere Ave. Te Atatu
유재영 공선화	유성우	Munroe Ln. Albany
김중균 박선미	김용수, 솔기	Lake Rd. Northcote
신덕식 유현진	신동혁	Spencer Rd. Pinehill

• 결혼

서정균, 송정순 권사의 장녀 리사 양이
지난 24일 결혼하였습니다.
이기대, 전승희 집사의 자녀 이규석 군과
김태성, 최혜선 집사의 자녀 김하은 양이
지난 1일 결혼하였습니다.

- 환우를 위한 진료와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 다



이소 망 의 언덕 기쁨 의 땅- 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간히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소 명 의 언덕 거룩한 땅- 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수 없네



내 영 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목장소식

주님과 함께 하는 한우리 푸른목장

초원	목장 이름	목 자	연락처	초원	목장 이름	목 자	연락처
코람데오	1 로템나무 평양	김승기	21575899	온유	39 베다니	이강용	21977942
	2 예멘	형재홍	2102945114		40 인도네시아	채제섭	21424199
	3 천국 나그네	강성배	211069821		41 미얀마	신동명	21719167
	4 제주한라	이상용	21821190		42 도우라안디옥	황용선	21399603
	5 멜번	지영철	2102750720		43 Kia Ora	이경현	2102750654
소망	6 하얼빈푸른	김영현	211721138	44 한국 다음세대	정민혁	21630912	
	7 낮은 울타리	주성은	2108354513	45 중국무지개	이성열	274573211	
	8 우크라이나	김형수	275622266	46 터키오네시보로	김태성	212168531	
	9 느헤미야	이경석	21868075	47 감비아	김규영	220299838	
사랑	10 선한사마리아인	권호남	212627967	48 베뢰아	이재용	210480543	
	11 아베스	김인배	21759380	49 필라델피아푸른	임상규	2108661226	
	12 바울 로마	오 훈	2102859399	50 인도원달라	안병우	2108491788	
	13 스칸디나비아동행	김용태	274711446	51 히엘 필리핀	한진호	272710948	
	14 바나바	김종국	21654688	52 베트남	김형석	21453862	
다윗	15 바누아투 푸른	남성주	2102701990	53 이리안자야쁘대나	채금희	21569056	
	16 블라디보스톡	민봉식	211063498	54 양의문	조종면	275325423	
	17 헤세드 누쿠알로파	김용희	211282102	55 말라위	여운영	225439531	
	18 수단로고스	김성국	272714894	56 오클랜드	장태용	224695511	
빛	19 솔로몬제도	송현호	2102954933	57 북한개성	주운태	2102847491	
	20 칠레파타고니아	김호준	221996630	58 키르키즈스탄	김태중	2102529797	
	21 브엘세바이스라엘	김태원	21677132	59 일본	손동욱	212043531	
	22 오사카	김택원	220806738	60 러셀	안응진	211821185	
	23 가나	이광일	212179303	61 노스쇼어	오현중	273206245	
	24 부르키나파소	권경호	21556934	62 LA	정두련	211365151	
우리	25 가데스바네아	허진희	2102308976	63 서울	김태성	211499624	
	26 파푸아뉴기니	원재호	21473018	64 산토	조기동	2102370987	
	27 월드파키스탄	손보영	21380366	65 네팔 은혜	구재운	277844645	
	28 엘림	이명준	272970117	66 직가 바울	이군식	21779958	
	29 가테말라 사랑	김휘홍	21730740	67 이집트	박진석	21356818	
	30 태국사랑	김지연	210316041	68 임마누엘 싱가포르	최재인	21524896	
참빛	31 월드 모로코	윤수정	272008546	69 아비가일	안경옥	2102913234	
	32 Central 오클랜드	임상혁	21878868	70 오병이어	최병한	212136995	
	33 필리핀 안티폴로	최종민	272287226	71 웰링턴	이종훈	21781999	
	34 벨엘	신규식	21417756	72 에벤에셀 MercyShip	이민수	21810072	
	35 모스코	노희영	274308322	73 캄보디아늘푸른	고현숙	21996653	
	36 섬나	나중엽	21386202	74 캄보디아바라크	최진순	211862748	
37 익투스북한	박경배	211705296	75 예루살렘	박경남	274325524		
38 통가	송경순	2102562581					
교 구	초 원		교역자	3 교구	우리 참빛 온유		이요한
1 교구	코람데오	소망	안현수	4 교구	무지개	임마누엘	이성민
2 교구	다윗	빛	최영두	5 교구	믿음	성결	김진영



시대를 이끄는 사람 7
무슨 일이든지 주께 하듯 (골 3:17-24)

시대를 이끄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나 자신임을 인식하되 내게 주어진 일에 주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시대를 이끄는 사람으로 사는 것임을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생각의 선택으로 나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렵지 않은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인간은 만족과 감사보다 불만족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1. 나 자신이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지 생각해보라, 긍정적인 것, 아니면 부정적인 것인지 생각해보고 서로 나누어 보세요.

2. 현재 나의 신분, 현재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인지를 메시지를 통해 함께 정리해보라.

3.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메시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함께 정리해보라.

4. 이번 메시지를 통해 내게 주시는 교훈을 한가지씩 나누고 함께 기도하라.

<p>영국</p>	<p>“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영국 상원 토론서 ‘전환치료 금지법’ 도입 반대… “국제적 최측 사례”</p>
<p>영국의 기독교 옹호 단체인 크리스천컨선은 종교 및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 ‘동성애 전환치료 금지 법안’에 반대한 영국 상원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상원 법안 5호는 개인의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타고난 성별로 전환하려는 시도 또는 후천적으로 바꾼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표현을 억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법이 제정되면 위반자는 “표준 기준 5등급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최고 형량이 규정되지 않아 벌금이 무제한이다. 법안 5호에 대한 토론회에서 29명 상원 의원들이 반대를 표명했으며, 15명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크리스천컨선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문제에 대해 합의된 개인 간의 대화”가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대화에는 “부모와 자녀, 가족과 가족 구성원, 치료사와 고객, 성직자와 교인, 기타 종교 단체, 인생 코치, 자기 도우미 그룹의 지원자 및 구성원, 의사나 의료진과 그들의 환자들”의 대화가 포함된다”고 밝혔다(출처: 기독교일보 종합).</p>	
<p>북한</p>	<p>“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도다” 정부,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남북민 통합 기대</p>
<p>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주문한 가운데, 통일부 장관은 21일 오전 진행된 국민통합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특위’ 출범식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해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한다”고 밝혔다.</p> <p>북한이탈주민법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1997년 7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탈북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통합위원회는 탈북민이라는 용어 대신 ‘북 배경 주민’이라는 말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할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출처: 데일리NK, VOA 종합).</p>	
<p style="text-align: center;">기 도 문</p> <p>사랑하는 하나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진리에 반하는 법이 제정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영국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사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 [북한]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십자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 [교우를 위해] 우리가 예배할 때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하듯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p>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p>	

